

# 새만금 수변도시를 '스마트' 하게

### 7월에 열린 전북 민생토론회 후속조치로 스마트 수변도시 방향 정립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깨끗'을 앞두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지난 7월에 개최한 전북 민생토론회서 논의된 안건 중 '새만금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책 마련'의 후속조치로 연계하여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이하 새만금공사)가 2020년에 첫 통합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200만평 부지에 대한 매립을 2023년 6월에 완료하였다. 현재는 우선적으로 도시의 북서권역인 1공구 80만평에 대해 도시 기반 조성공사 중이다. 2026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정주여건 개선 방안으로서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에 담긴 주요 내용은 새만금의 부자유치 성과에 따른 새로운 도시서비스 수요 대응, 지방소멸 시대에 인구 유입 요소 강화를 위한 도시 매력도 증진이다.

새만금청은 정주여건 강화 및 도시



매력도 증진을 위한 핵심 전략이 수변도시를 '스마트도시'로 구현하기 위한 특화방안 모색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번에 변경하는 통합개발계획 상에는 전체적인 방향을 재정립한 후 새만금공사와 논의하여 향후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왜냐하면, 최근 개발 중인 신도시는 사실상 스마트 도시법에 따라 모두 스마트 도시로 건설되고 있으며, 기존 도시들도 주민생활 여건 개선 등 도시 재생사업 차원에서 스마트시설 구축 사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수변도시의 새만금 지역의 첫 도시이자 매립부터 조성까지 원스톱으로 진행되는 국가 주도 계획도시

로 다른 도시와 차별화되어야 할 당위성이 있으며, 산단과 항만 배후도시이자 기업 지원도시인 점 등 다방면을 고려한 특화 방안 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우선 새만금개발공사가 5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반영하여 수변도시 통합관제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필두로 24시 AI-방범시스템 등 여타 스마트 도시에서 공통적으로 구축한 기본적인 스마트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설치하려는 계획이다.

또한 새만금청과 새만금공사는 도시 특성을 고려한 특화방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첫째로 '수변'이라는 공간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해 각종 모빌리티 방안을 특화할 계획이다.

먼저, 중심 수로폭 15m를 30m까지 확대하여 도시 내 수상교통망 기반을 마련하였다. 육상교통 측면으로는, 4권역으로 나누어진 도심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스마트링 기반 자율주행 도로를 건설하여 스마트 정류장,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스마트 교통 기간시

설로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UAM 등 신(新) 모빌리티와 연계하는 육·해·공 환승센터를 건립하여 새만금 수변도시의 핵심 스마트 시설로 삼으려는 것이다.

그리고 아직 제2권역이 개발 중에 있어 수변도시가 당분간 기존 도시와 이격되어 있는 점을 감안해 단기적 해결책으로 수요응답형 버스 등의 도입도 반영할 예정이다.

둘째로 '새만금' 지역 중에서도 신항만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을 활용하기 위해, 2026년에 2선석이 우선 준공되는 신항만의 물류 수송을 뒷받침할 스마트 물류단지를 도시 남서부 권역에 위치한 복합산업단지에도 도입할 계획이다.

셋째로 '도시' 지역으로서 특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로에너지 건축을 도입한 탄소중립 주거단지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 중 약 30세대의 단독주택은 리빙랩 운영 시범단지로 지정하고, 입주자를 대상으로 에너지 사용 등 정보를 AI-시스템으로 수집하여 시민 밀착형 정책 수립에 활용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논의 중이다. /01만호 기자

## 치유관광, 은퇴자 '활력 충전'

### 농진청, 농촌 치유관광 프로그램 활동적 은퇴자에 적용

농촌진흥청(청장 김재환)이 개발한 농촌 치유관광 프로그램이 활동적 은퇴자의 심신 활력을 높이는 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활동적 은퇴자는 은퇴 후에도 자기 계발과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대로 비교적 경제적 여유가 있는 소비층이다. 최근 이들은 겨냥한 제품과 서비스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농촌진흥청은 활동적 은퇴자의 농촌 방문을 활성화하고, 유희와 휴양, 여가, 놀이, 개인적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올해 농촌 치유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연구진은 전북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재단, 전주시 덕진노인복지관과 함께 9월 25일, 10월 16일과 23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익산 산들강릉포마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농촌 치유관광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했다.

전주시 덕진노인복지관에 등록된 61~74세의 활동적 은퇴자 20명이 신체 활력(두근두근 흥당무 난타), 자연 속 숨(바울길 소리치유), 여가·놀이(알 장치기 놀이), 농촌 공동체 경험(통고동락 농활탐방대), 소통·교류(이심전심 사랑방) 활동에 참여했다.

프로그램 참여 전후 심리적, 생리적 변화를 측정한 결과 스트레스(11.0%)와 무력감(13.9%)이 낮아졌고, 행복감(10%)과 활력도(14%), 삶의 만족도(9.9%), 신체 효능감(9.4%)은 높아져 은퇴자의 심신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자연 속에서 활기와 즐거움을 찾았고, 전에 느껴보지 못한 생동감을 맛보았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주시 덕진노인복지관 관계자는 "참여자들의 호응도가 높아 점차 이용자를 확대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농진청은 프로그램 참여자와 관련된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완성도를 높여 농촌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김옥기 기자

## 바이오진흥원, 바이오헬스산업 성과공유·네트워크 구축 간담회

### 바이오헬스기업 15개사 관계자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논의

전북바이오산업융합진흥원은 바이오헬스기업 고도화 등의 성과공유·네트워크 협력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는 지난 5일, 바이오헬스기업 고도화 및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연계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풍림파라텍, 썬메디텍, 스킨프루, 씨니씨아이드업, 모리 등 전북 소재 바이오헬스기업 15개사 관



계자들이 함께하여 의견을 나눴다.

바이오헬스기업 고도화 및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은 생명공학과의 의·약학 지식에 기초,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북의 바이오헬스기업을 대상으로 △시

제품 제작, △해의 인증 획득, △액셀러레이팅, △홍보·마케팅 등 기술 및 기업 역량강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로 3년차를 맞이한 본 사업은 22년 4개사, 23년 10개사, 24년 12개사를 지원하며 전북 바이오헬스산업의 성장기반을 다졌다.

바이오헬스기업 고도화 및 창업활성화 지원사업의 2개년 성과로는 시제품 개발 8건, 인허가 4건, 매출 177억원, 고용 9명의 등의 주요 성과가 집계되었으며, 올해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사업 수주 및 미국법인 설립을 통한 수출 증대 성과가 기대된다고 보고했다. /김옥기 기자

## 경진원, 퇴직예정자 대상 재취업지원 교육 운영

###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이 지난 4일, 책임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교육을 운영했다.

재취업지원서비스란 사업주가 정년 퇴직이나 계약만료 등의 사유로 이직 예정인 근로자의 원활한 재취업과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00명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경진원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대상 기관은 아니지만 중장년층 근로자들의 생애설계와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사발전재단과 한국표준협회와 올해 8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가와 함께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자들의 수요가 가장 많았던 진로탐색과 재무운영 및 성과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김옥기 기자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진로탐색 분야의 경우 '성공적인 인생 2막 설계'를 주제로 재취업, 창업·창직, 귀농·귀촌, 사회공헌 등 퇴직 이후 다양한 삶의 방식을 알아보고 원하는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찾는 방법과 퇴직 후 받을 수 있는 각종 정부 지원 제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였다.

행복한 인생 여행을 위한 경제 지침서라는 주제로 진행된 두번째 재무관리 분야 교육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은퇴 시 유용한 금융 상품과 연금, 등 중장년 맞춤 재무설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참여자는 "퇴직 후 어떤 일을 하면 좋을지 고민이었는데 다양한 퇴직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 새만금개발공사, 제17회 대한민국소통어워즈 수상

새만금개발공사가 7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통어워즈 공공부문에서 대한민국 인터넷 소통대상과 대한민국 소셜미디어 대상을 받았다.

대한민국 소통어워즈는 (사)한국인터넷소통협회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후원하는 행사로 매해 공공기관과 기업의 디지털 소통, 콘텐츠 경쟁력,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상을 수여하고 있다.

공사의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디지털 홍보는 소통 지수(CSI·SCSI)와 콘텐츠 경쟁력 지수(CQ)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AAA 등급을 획득했다. 이에 소셜미디어 대상은 2년 연속 수상하였으며, 올해는 인터넷 소통 부문까지 확대하여 2개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였다.

공사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총 4개의 공식 채널을 운영 중이다. /01만호 기자

## LX공사, 디지털 SOC사업 활성화 컨퍼런스 개최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어명소)와 SOC사업 관계기관이 지적사업 시장 확대 및 미래형 지적사업 활성화를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LX공사는 7일 일산 컨텍스에서 열리는 2024년 K-Geo 페스타에서 디지털 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토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LX공사와 한국도로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가

철도공단 등이 참석해 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적측량 육성사업 발굴, SOC사업 기술 공유 등이 논의됐다.

1세션에서는 LX공사의 이기호 차장이 '용지보상 및 시공 효율화를 위한 지적측량방안', 조해진 선임의 '디지털 국토 플랫폼의 시연과 활용사례', 한국도로공사 이선미 차장의 '토지행정업무 디지털 전환 추진계획'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다.



2세션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장옥련 부장의 '대단위 도시개발사업 추진절차 및 성과'와 국가철도공단의 황희정 부장의 'KR토지보상시스템 구축 운영 및 성과'에 대한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김옥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